

민주, 집단지도체제로 간다

전대 불가피론 확산...2~3월중 개최 유력 원·내외 인사 15명 최고위원 출마 움직임

민주당이 오는 8일 대표단 회의, 10일 중앙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집단지도체제 도입의 전제하에 지도부 진임을 노리는 원내외 인사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진임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정계개편의 회오리 속에 건널 수 있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며 원내외 인사들에게는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전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 대표단 회의를 개최,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 이후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정계개편을 앞두고 정통성 논란 등의 지적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최 시기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당헌·당규 개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10일께로 전망되고 있다.

또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조 상 현재의 단일 지도체제보다는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해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 1위 후보가 대표가 되고 2명의 최고위원은 대표가 지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설 15명 내외의 원내외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최인기, 조순형,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손봉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최고위원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 상열 의원도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경선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김효석 의원은 "지금은 경선 참여 여부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거리를 뒀으나 한화갑 전 대표 등 원내외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참여 가능성도 크다.

조순형 의원도 당권 도전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으나 탄핵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경선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원외에서는 장상 대표와 정균환, 박상천, 박추선, 김경재, 김영환, 김영진, 신낙균 전 의원,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상 대표는 이승희 손봉숙 의원, 신낙균 전 의원 등과 여성 몫 최고위원을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화갑 전 대표가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는 박추선 전 의원은 이날 "주위에서 출마 권유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해 경선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정균환 전 의원과 박상천 전 의원도 아직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만 형성된다면 경선에 뛰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김경재 전 의원도 최근 사무실을 내고 경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와 수도권에 나뉘며 세를 형성하고 있는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도 "전대가 개최된다면 젊은 세대를 대표해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원혜영 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개편 급물살

우리당 2월 전대준비위 공식활동 돌입 與·민주 일부 통합신당 모임 구성 나서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추진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신당과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공동모임 구성에 나서는 등 정계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일 열린우리당 전대준비위는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원혜영 위원장 주재로 전당대회준비위 첫 회의를 열어 7개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등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의제와 성격, 당헌·당규 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또한, 희망 21, 실사구시, 안개도, 국민의 길, 민평련 등 여당 내 통합신당과 모임 대표들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매주 수요일 정례적으로 회동하고 오는 17일 신당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대세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통합수입기구 구성 등 신당 창당의 실질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전대준비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당의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과 민주당의 친 고건계 의원 등 10여명이 당 외부에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공동모임을 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날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새로운 정치세력 추진을 위한 공동모임에 민주당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동 모임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임이 현실화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2~3명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통합신당 창당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우리당과 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모여 통합신당의 밑그림을 제시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모임이 구성되는 대로 열린우리당 최대주주인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통합신당 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과반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30여명이 4일 신년하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의 초청 형식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이낙연, 신중식 의원, 김상현 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통합신당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자 당 사수파인 혁신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는 4일 오찬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일정 연기, 기간당원제 복구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대통령에 관심 없고 與서 거론되는게 더 싫다”

정운찬 前총장



건 전 총리까지 나서 정 전 총장의 정치참여를 위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지난달 26일 자신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송전동에서 "총정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왔다"면서 정치적 해석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했던 정 전 총장이 이날 "우리당에서 거론되는 게 더 싫다"고 언급한 것은 범여권의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마저 낀다.

그러나 그는 여권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앞으로 저는 할 말이 없다"며 재차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일 자신이 여권내 '제3의 대권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는 대통령에 관심이 없다"며 "특히 우리당에서 거론되는 게 더 싫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여권의 대권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거론되는 것도 싫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반응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권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여권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고

“승격 급한 광주공항 폐쇄라니...”

광주시, 우리당 김동철 의원 발원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광주공항 폐쇄 추진 및 도시철도 2호선은 시기상조'라는 발언과 관련, 광주시는 "교통정책은 시민 편의와 경제규모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광주시의 경제 상황과 인구,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정책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공항 폐쇄 주장과 관련, 광주공항은 흑자 운영 공항이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설 보안을 통해 '개항공향'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광주지역 상공계는 공항의 기능이나 규모는 수용자와 항공사, 공항 운영자 등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광주공항은 8개 국내 공항(국제공항 7개) 중 유일하게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히려 개항공향으로 확장해야 할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또 광주지역 경제구조가 소비형에서 산업형으로 바뀌고 있는데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건립 이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항 규모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1호선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지만 순환선 성격인 2호선

이 완공되면 적자 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1호선의 효율성과 버스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흑자 운영 공항을 축소할 경우 시민은 물론 광주지역 상공계, 전남 동부권까지도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광주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광주 경제의 생사와 직결된 사안이며, 날로 경제력이 커가는 광주로서는 존치는 물론 더 나아가 개항공향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호 - 새싹도 된대기 여행

★ 해남도여행 마지막잔스 ★
1/18, 28 2/1, 4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1박2일 2인 1실

광주광역시관광진흥회